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9월 19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경 제 정 책 과	담 당 자	• 일자리정책담당 • 주무관	변영환 ☎440-4231 최선화 ☎440-4236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유해 화학물질 작업복 세탁 지원

- 시, 「작업복 블루워싱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 뿌리 산업 인식개선과 근로자 복지 향상,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도 -

인천시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작업복 세탁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9일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에서 뿌리 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작업복 블루워싱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작업복 블루워싱 지원사업은 인천시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추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는 인천광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테크노파크, 사회적기업 뉴라이프재단,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이 참여한다.

산업단지 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만큼 일반 가정에서 세탁이 어렵고, 일반 세탁소에 맡기는 경우 경제적 부담 커 작업복 세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과 위생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복 세탁 지원에 협력하고, 인천테크노파크는 작업복 오염이 큰 표면처리업체들로 구성된 표면처리협동조합 내 뿌리 기업 근무자들이 작업복 세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한다.

작업복 세탁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가 출소자와 함께 운영 중인 ‘뉴라이프재단 클리닝센터(세탁공장)’ 이 맡을 예정인데, 뉴라이프재단은 갇생보호대상자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인천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110개 기업의 작업복 5,400벌을 세탁지원 할 예정이며, 앞으로 취업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계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뿌리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자에게는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 사업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